

『黃帝內經』에 나타난 陰陽相互關係論 略考

원종실*

원광대학교 한의전문대학원 한의정보학과

Study On The Theory of The Interrelation of Yin and Yang in The Nei Ching

Jong Sil Won*

Department of Oriental Medical Informatic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In Chinese philosophy, the concept of Yin and Yang, in the era of the Early China, applies to many more philosophical categories than mere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nny side and the shady side of the sun. A whole series of possible interactions between the Yin and Yang in life is contained in the Chinese Book of Changes, the I Ching. The philosophical theory and the origin of natural sciences of the I Ching is imbued in the Nei Ching. Having absorbed and developed the essence of Book of Changes, the Nei Ching reflects the spirit of science. Under the influence of Book of Changes, as well as its idea of Yin and Yang, peculiar at the time, the Nei Ching adapts the essences of the theory of Yin and Yang. The contribution made by the Nei Ch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philosophical concepts of Yin and Yang lies in that it combines those philosophical concepts with medicine and makes this the basic theory of Chinese medicine. In the Nei Ching, the Yin and Yang theory asserts that the human body is an organic whole, and there exists an organic connection between all tissues and structures. Therefore, the Yin and Yang functions as an essential life that plays a major role of the organic interrelation, the mutual control, and the mutual assistance. Yet, at the same time, each of them can be divided into the opposite aspects of yin and yang. Yin and yang depend on each other for existence. Without yin, there would be no yang, Without yang, there would be no yin. Neither can exist in isolation. Thus the interrelation of Yin and Yang is premised on the two opposite forces and aspects as the underlying cause of all change of Yin and Yang.

Key words : Nei Ching(內經), Yin and Yang(陰陽), The Organic Interrelation (有機體的 相互關係), mutual control(상호견제), mutual assistanc(상호공조)

서 론

고대 中國思想에서 음양 개념의 연원은 극히 오래 되었으며, 초기의 陰陽 개념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대개 태양빛의 비추임의 여부를 의미하는데서 시작되었다. 고대 유가경전인 『시경』 『서경』 『역경』 등에는 음과 양이 점차 상반되는 의미로 사용된 기록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書經·禹貢』에는 陽자가 여섯 차례 나타나는데, 그중 “岳陽” “曄陽” “衡陽” “華陽” “岷山之陽” 등은 모두 ‘산의 남쪽’이란 의미로 사용하였다. 또한 『書經·

禹貢』에는 “南至于華陰”이란 기록이 있는데, 여기의 “華陰”은 바로 ‘산의 북쪽’이란 의미로 사용되어졌다. 즉 음과 양이 산의 북쪽과 남쪽을 의미하는 상반된 개념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 『易經』에는 단독으로 “陰”자가 한 번 기록되어 있으며¹⁾, 『詩經』에는 여러 차례 “陰陽”의 병렬 형태의 기록이 있고 음양의 의미가 비교적 풍부하게 나타나 있다.

춘추말기에서 전국에 걸친 백가쟁명의 시대에 이르러 많은 제자백가들이 음양을 논하였고 특히 음양가에 의해 음양과 오행을 결합한 음양오행사상이 수립되어진다²⁾. 또한, 전국후기 漢初에 걸쳐 유가제자들에게 의해 편찬된 『易傳』³⁾에 이르러는 완

* 교신저자 : 원종실, 전북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대학교 한의전문대학원
· E-mail : wonheon@wonkwang.ac.kr, · Tel : 063-850-6936
· 접수 : 2004/11/27 · 수정 : 2004/12/29 · 채택 : 2005/01/29

1) 『易經·中孚·九二』.. “鳴鶴在陰，其子和之.”
2) 제자백가 중에 공자와 맹자는 음양을 언급하지 않았다. 즉 『논어』

정한 陰陽哲學체계가 건립되어지며, 음양은 철학범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음양 개념은 변화와 발전을 거치며 자연 현상을 의미하는 원시적 의미에서 탈피하여 음과 양이 지나는 상반적 속성이나 기능을 의미하는 철학적 범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중에 중국 醫家에 의해 흡수 융합되어진 음양 개념은 바로 『黃帝內經』이란 방대한 中醫學思想 체계 안에서 또 다시 中醫學 고유의 陰陽사상으로 독특한 음양 사유체계와 이론으로 정립되어 새롭게 탄생되어진다.

본 논문은 바로 『黃帝內經』 전체를 관통하여 풍부하게 나타나는 음양간의 극히 유기체적인 상호관계 사상에 대해 『내경』 원문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탐구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지금 시대에 만연된 대립적이며 相互不收容적인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공멸을 자초하는 현대 인류의 비생명적 상호관계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론

1. 『老子』, 『易傳』, 『黃帝內經』을 관통하는 음양 생명원리

『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황제는 음양이 곧 천지의 道이며 만물의 紀綱이며, 또한 변화의 근원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 이는 곧 『역전』을 관통하고 있는 「一陰一陽之謂道」의 근본정신이 『황제내경』에서도 동일하게 계승되어져 『역전』과 『내경』을 무분하고 양자의 최대 人生哲理의 근본은 바로 음양이라고 강조하는 내용이다. 즉 황제는 말하기를...

黃帝曰..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 求于本.

(황제가 말하기를, “음양은 천지의 도이며, 만물의 규율이며, 변화의 근원이고, 생성과 소멸의 근본 시작이요, 신묘막측한 변화의 창고이니, 질병을 치료할 때 반드시 이 근본에서 탐구해야 한다.”)

라고 말하여, 음양이 천지의 도요, 만물의 기강이요, 변화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바로 모든 만물의 삶과 죽음의 근본이요, 신비한 생명섭리의 창고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질병의 치료는 반드시 음양의 섭리를 깨닫는데서 시작한다고 음양의론의 중요성을 설교하고 있다. 이런 깨달에 天道에 통달한 이는 바로 음양을 그의 근본으로 삼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內經·素問·

生氣通天論』에서는 음양에 대해 말하기를...

黃帝曰.. 夫自古通天者生之本, 本于陰陽.

(황제가 말하기를, “무릇 옛부터 天道에 통달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 되며, 이는 음양의 섭리를 깨닫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⁴⁾) 라고 하여, 인생의 근본은 천도를 통달하는데 있으며, 천도의 근본은 바로 음양의 섭리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內經·素問·上古天真論』에서는 또 말하기를...

上古之人, 其知道者, 法于陰陽, 和于術數, 食飲有節, 起居有常, 不妄作勞, 故能形與神俱, 而盡其天年, 度百歲乃去.

(상고 시대에 도를 아는 사람은 陰陽의 이치를 본받고, 術數에 화합하여 살았으며, 음식에 절도가 있고, 생활에 규칙이 있었으며, 망령되지 몸을 수고롭게 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육체와 정신을 온전히 보전하여 천수를 다 마칠 수가 있었고, 백세가 지나서 세상을 떠났다.)

라고 말하였는데, 역시 천도를 깨달은 이는 바로 음양의 이치를 배워 실행하는 자이며, 인간의 기본 생활인 의식주 그리고 노동 생활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음양 규율의 실천이 바로 육체와 정신을 두루 간직하여 천수를 다하는 비결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천도의 근본이 되는 음양의 섭리를 몸소 실현함으로써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한다는 음양의론의 기본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국 최고의 의학서일 뿐만 아니라, 극히 방대한 철학총서라 할 수 있는 『내경』에서, 가장 중시하는 근본사상이 음양 이치임을 알게 된다. 즉 『내경』 사상이 음양을 천지간 최고의 법도요 만물의 기강이라고 여기고, 도를 깨달은 자는 반드시 음양의 이치를 본받으며, 또한 음양을 배우고 행하는 것이 바로 천도를 통달하는 것이라고 거듭 천명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여기에서 잠시 거슬러 올라가 『老子』의 음양 개념을 살펴보면, 그는 말하기를...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42章)

(만물은 음을 등에 지고 양을 앞에 품어, 음과 양의 생명기능이 상호 활동하여 조화를 이루어낸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 이는 비록 극히 간결한 한 구절이지만 노자가 음양을 만물생성의 구체적인 섭리로 인식하는 부분으로, 노자의 음양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노자는 분명히 음과 양을 만물 創生의 양대 생명기능으로 바라보았고, 바로 음과 양의 생명활동으로 비로서 만물이 생성되어졌다고 인식하고 있다. 즉 음과 양의 상반적 요소를 만물의 생명활동 및 생명기능의 양대 필수 요소로 인식했던 『노자』의 음양 개념은 바로 『내경』에 이르러서 그 범위와 개념이 극히 심화되고 발전되어져 신체내의 모든 생명기능과 생명활동에 음양의 섭리가 구체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노자』 42장의 의 음양사상은 비록 극히 간결한 내용이지만 『역전』과 마찬가지로 『내경』의 음양사상 형성에 중요한 영

『맹자』, 『증용』에는 모두 음양설에 관한 기록이 없다. 다만, 『순자』에는 “夫星之曜, 木之鳴, 是天地之變, 陰陽之化, 物之罕至者也.” “순자□천문”라고 하여 자연현상으로 음양을 언급하고 있다. 이외에, 『左傳』, 『國語』, 『목자』, 『관자』, 『한비자』, 『손자』, 『여씨춘추』 등에는 모두 음양에 관한 언급이 나타나 있다. 이는 곧 전국시대 음양 개념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진 개념이라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또한, 『역전』에는 주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단독 형태의 陰자가 한번 기록되었을 뿐이며 陽자는 나타나지 않는다. 『역전』에 이르러 비로소 음양을 철학의 기본원리로 삼고, “一陰一陽之謂道”라 하여 음양 개념으로 道의 의미를 설명하였고, 구체적으로 卦象, 爻象 및 사물의 根本性質 등을 설명하고 있다. 즉 『역전』에 이르러 음양은 우주만물과 인간을 설명하는 주요 철학범주로 견고하게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자』 42장에 역시 분명하게 음양 개념으로 도를 설명하고 있으며, 『장자』 역시 음양개념이 나타나 있다.

3) 『易經』은 64괘와 384효 및 卦辭, 爻辭등을 포함한다. 『易傳』은 經에 대한 주해라 하여 『역전』이라 명칭하며, 彖, 十翼이라고도 한다. 象上, 下, 象上下, 繫辭上下, 文言, 序卦, 說卦, 雜卦 십편을 포함한다.

4) 清代 張隱庵은 『黃帝內經素問集注』에서 말하기를 “凡人有生, 受氣于天, 故通乎天者, 乃所生之本. 天以陰陽五行, 化生萬物, 故生之本, 本乎陰陽也.”(무릇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서 기를 품수 받아 태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하늘 섭리 즉 天道에 통달하는 것이 곧 인생의 근본이다. 天道는 음양오행으로 만물을 생장 변화시키기 때문에, 생명의 근본은 음양의 이치를 깨닫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주석하였다. 張隱庵著 『黃帝內經素問集注』, 孫國中, 方向紅點校, 學苑出版社, 2003년.

함을 끼쳤으며, 삼자의 음양 생명원리는 일맥상통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음양 개념으로 도를 설명한 『노자』 42장과 『역전·계사』의 사상적 관련성에 관해, 陳鼓應은 그의 저서 『易傳與道家思想』에서 『역전·계사』의 “一陰一陽之謂道”의 사상은 곧 『노자』 42장의 사상을 계승하여 수립한 이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해, 陳은 음양으로 도를 설명한 『역전·계사』의 음양사상이 바로 『노자』 42장에서 연원하였으며, 『노자』와 동일맥락의 음양사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⁵⁾.

이와 같이, 음양으로 도를 설명하는 노자 42장의 사상은 또한 『역전·계사』에 의해 계승 발전되어졌고, 『역전』의 음양 사상은 또 다시 중의학의 최고 경전인 『황제내경』에 의해 크게 흡수, 융합되어, 우주만물의 도는 물론이요 인간신체와 품성을 모두 관통하는 음양 사상으로 발전되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립된 『내경』에는 『역전』과는 또 다른 중의학 특유의 음양상호관계 사상을 정립하게 된다.

또한, 『노자』와 『역전』 그리고 『황제내경』으로 계승되어지는 음양사상의 관련성에 대해, 왕빙은 『黃帝內經素問注·陰陽應象大論』에서 “陰陽者, 天地之道也”에 대해 주석해 말하기를 “謂變化生成之道也. 『老子』曰,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易·繫辭』曰, 一陰一陽之謂道, 此之謂也”라고 해석하였다. 즉 왕빙은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노자』 — “一陰一陽之謂道” 『역전』 — “陰陽者, 天地之道也” 『내경』를 모두 동일 맥락의 음양사상의 계승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음양이 곧 천지만물을 생성 변화시키는 道라고 설명하고 있다⁶⁾. 이와 같이, 음양을 우주 만물을 생성시키고 변화시키는 양대 생명기능으로 인식한 음양의 생명원리는 『老子』 - 『易傳』 - 『黃帝內經』, 삼자를 관통하며 『내경』에 이르러 최고로 발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내경』의 음양오행은 비단 천지를 함일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신체와 정신에 이르기까지 음양 원리를 철저히 적용시켜 마침내 天과 地와 人(신체와 정신을 포함)을 완벽하게 관통하는 통일적 음양사상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내경』의 陰陽醫論 사상은 『역전』을 포함한 이전의 음양사상과 분명한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⁷⁾, 중국철학의 음양사상사에서 또 하나의 획을 긋는 독보적인 발전을 이루

게 된다.

『내경』 이후의 중국의학은 바로 이러한 『내경』의 陰陽醫論 사상을 철저히 계승하여 발전시켰는데, 후일 명대 장개빈은 醫道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음양원리라고 강조하기에 이르다⁸⁾. 이와 같이, 『내경』을 위시한 중의학의 모든 질병 치료는, 신체의 陰陽 상태를 살피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며, 中醫學의 王道는 바로 음양원리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내경』에 이르러 陰陽 개념은 이미 초기 음양학과의 원시적 의미와 『주역』의 자연적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을 넘어서, 인간 신체의 구체적 기능과 속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범주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 전통철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선진儒家의 대표적 사상서인 『주역』은 물론이요, 선진道家인 『노자』 사상 그리고 중국의학의 최고봉인 『황제내경』은 모두 陰陽을 가장 핵심적인 만물 창생의 구체적인 생명원리와 생명기능으로 인식하였으며, 특히 陰陽 개념에 있어 삼자는 매우 긴밀한 사상적 연계와 계승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내경』 음양의 함의

먼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陰陽개념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자연실체의 개념이다. 『管子·四時』에서는 일찍이 말하기를 “日掌陽, 月掌陰”(해는 양을 관장하고, 달은 음을 관장한다)라고 하였고, 『易傳·繫辭下』 “乾, 陽物也., 坤, 陰物也.”(건은 양물이요., 곤은 음물이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의 이른바 음양은 日月, 天地, 水火 등의 자연실체를 의미하고 있다. 둘째는 자연실체를 의미하는 陰陽에서 응용 발전하여 陰陽物이 지나는 속성과 기능을 의미하는 음양개념이다. 대부분의 중국철학이나 중국의학철학에서는 사용하는 음양 개념은 대개 원시적 자연실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음양의 속성과 기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음양을 氣라고 해석하였다. 이른바 陰氣 陽氣 혹은 陰陽之氣 등은 모두 이러한 陰의 혹은 陽의 속성과 기능을 지닌 생명기능, 생명속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⁹⁾.

아래에서는, 바로 『내경』에서 사용하는 음양 개념의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 『내경』에서 설명하는 음양의 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易傳·繫辭』에서는 일찍이 말하기를 “一陰一陽之謂道”라고 하였는데, 이는 선진철학중에 음양과 도의 관계를 논한 최고

5) 즉 陳鼓應은 『易傳與道家思想』에서 말하기를 “『繫辭』這裏以陰陽爲「道」的內涵, 正是出自老子42章, 道生一, 一生二, ……萬物負陰而抱陽, 沖氣以爲和. 『繫辭』作者承襲着這觀點, 綜合而成爲形而上學的基本哲學命題.”라고 하였다. p77, 三聯書店, 1996년.

6) 王冰, 『黃帝內經素問注·陰陽應象大論』, 人民衛生出版社, 1996년.

7) 내경의 음양사상과 주역을 포함한 이전 음양철학의 다른점에 대해서, 저자의 논문 『『황제내경』 陰陽五行醫論에 나타난 生命觀 初探』 제2절에서 자세히 언급하였다. 초기 음양철학의 음양 개념은 주로 자연실체를 의미하였으며, 『주역』에 이르러는 대개 음양의 원리를 인간 사회에 적용시켜 이해하였고, 자연철학과 사회철학을 결합하여 발전시켰다. 『내경』은 이러한 자연적 사회적 의미의 음양개념에서 더 나아가 인간생명 및 인간 신체에 음양개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바로 인간 신체와 생명을 이해하고 치료하는데 그 직접적 목적을 두고 응용되어졌다. 이러한 『내경』의 陰陽醫論에는 『역전』과는 또 다르게 음과 양간의 극히 유기체적이고 공생적인 상호관계가 『내경』 전체를 관통하며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이것이 곧 『내경』의 陰陽醫論 사상과 『역전』을 포함한 이전 陰陽철학과 주요한 다른 점의 하나가 되며, 심층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8) 즉 “凡診病施治, 必須先審陰陽, 乃爲醫道之綱領. ……醫道雖繁, 而可以一言蔽之者, 曰陰陽而已.”(무릇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할 때, 반드시 먼저 환자의 음양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곧 醫道의 강령이 된다. 醫道는 비록 복잡하나,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곧 음양의 섭리를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景岳全書·傳忠錄』라고 하여, 모든 질병의 진단과 치료의 시작은 반드시 먼저 신체 음양의 기능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첫째 관건이요 규율이라고 강조하였다.

9) 楊學勝은 그의 저서 『陰陽五行』에서 음양 개념을 세 종류로 분류하였는데 첫째는 實體 (태양과 관련한 자연실체 개념)요, 둘째는 氣요, 셋째는 屬性으로 분류하였다. p30-32, 科學出版社, 여기서 양씨가 두번째 음양을 氣로 설명한 것은 바로 陰陽之氣를 말한 것으로 陰의이거나 陽의인 生命機能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저자는 음양의 生命機能과 生命屬性을 같은 종류로 분류하였다. 1998년.

의 정의이다. 이에 대해, 주희는 해석해 말하기를 “陰陽迭運者, 氣也, 其理則所謂道” 《周易本義》라고 하였는데, 이는 陰陽이 氣이며, 음양의 運動法則이 곧 우주의 규율이라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주희는 理와 道를 形而上으로, 陰陽과 氣와 器를 形以下라 인식하는 사실로서, 陰陽이 바로 氣이며 이는 또한 形以下에 속한다고 주장하는 이론에 주목해야 한다. 즉 음양을 기로 인식하는 이론에서는 주희와 『내경』의 음양론이 일치하지만, 음양을 형이하의 氣로 인식하는 이론에서는 『내경』의 음양론과 서로 相違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내경·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말하기를 “陰陽者, 天地之道也, 萬物之綱紀, 變化之父母, 生殺之本始, 神明之府也, 治病必求于本”(음양은 천지의 도요, 만물의 기강이요, 변화의 부모요, 삶과 죽음의 근본이요, 신비한 생명활동의 창고이다. 질병 치료는 반드시 근본에서 방법을 구해야 한다.)라고 하여 陰陽을 원리나 이치의 측면에서 설명하였지 결코 有形有象의 형이하의 器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즉 『내경』은 陰陽을 理로 이해하였으며, 형이하의 物이라고 여기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 양화봉은 『陰陽五行』에서 “陰陽有名而無形”(음양은 이름은 있으나 무형이다)¹⁰라고 말하여 有名無形으로 『내경』의 陰陽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즉, 『내경』에서 주로 말하는 陰陽은 氣이나, 주희가 말하는 有形의 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요, 無形의 생명기능과 생명속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3. 『내경』 陰陽의 有機體의 상호관계론

음양은 모든 생명체가 지닌 절대 필수인 양대 생명기능으로, 一體의 兩面 관계이며, 一分爲二의 관계이다. 바로 一物의 앞면과 뒷면의 관계처럼 외형상으로 相反적인 형태와 모습을 취하나 둘은 모두 동일 생명체를 구성하는 必需 동지이자 파트너로서, 동일한 생명체의 유지와 존속을 공동의 목적으로 하며, 상반된 속성과 기능을 가지고 동일한 생명활동을 수행하는 최고의 이상적 파트너 관계이다. 『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일찍이 말하기를 ...

積陽爲天, 積陰爲地. 陰靜陽躁, 陽生陰長, 陽殺陰藏. 陽化氣, 陰成形.

(양이 쌓여 하늘이 되고 음이 쌓여 땅이 되며, 음은 정적으로 작용하며 양은 동적으로 작용한다. 양중에 또한 음양이 있는데 양중지양은 곧 만물을 발생시키며 그 음은 만물을 성장하게 한다. 음중에 또한 음양이 있는데 음중지양은 만물을 점차 쇠약하게 하고 그 음은 만물을 거두어 갈무리한다. 양은 기를 화생하고, 음은 형체를 이룬다.)

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비록 극히 간결하나 음과 양과의 有機體의 상호관계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극히 중요한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상기의 이론을 중심으로 『내경』의 음양 상호관계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1) 陰陽有異, 異中求同¹¹⁾(음양이 서로 다르며, 다른 가운데 동

일 목적을 추구한다)

◆“陰靜陽躁”◆

『內經』에서 음과 양은 분명히 다른 생명屬性을 지니고, 다른 생명機能을 수행한다. 이렇듯 음양은 서로 유별하나, 양자는 동일 생명의 유지라는 같은 목적을 추구한다. 『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이른바 “陰靜陽躁”(음은 고요하고 양은 동적이다)는 바로 음과 양의 양자 속성이 확실히 다를 것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예를 들면, 전통적인 가정에서 어머니는 가사일을 돌보고, 아버지는 바깥에서 일을 하여 생활비를 벌여 오는 것처럼, 在內와 在外의 외형적 활동범위가 서로 다르며 역할 또한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음과 양의 內外 혹은 靜躁 활동은 모두 동일한 가정 생존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한 생명활동의 앞 뒤 양면이라고 할 수 있다¹²⁾.

이와 같이 음과 양을 이해하는 기본 철학은 장개빈이 말한 “道者, 陰陽之理也. 陰陽者, 一分爲二也.”(道란 陰陽之理이다. 陰陽은 하나의 道에서 둘로 나뉘어진 것이다) 『類經·陰陽類』에서의 “一分爲二”의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道 즉 一에서 분화된 陰과 陽은 생명활동의 양대 절대필수 속성인 것이다. 여기에서 靜과 躁의 속성은 한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두 축을 구성하는 것으로, 만일 하나의 축이 무너지면 그 생명체의 전체축이 기울어져 생존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즉 靜과 躁란 상호간 배척과 消滅을 위한 대립적 관계가 아닌, 同生 즉 共生을 위한 共立의 관계로서 다만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同一 목적을 수행하는 관계인 것이다.

◆“陽化氣, 陰成形”◆

『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또 말하기를 “陽化氣, 陰成形”이라고 말하였는데, 이는 음과 양이 서로 속성이 다를 뿐만 아니라, 역할 기능 역시 서로 다를 것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양은 氣를 화생시키고 음은 형체를 이루는 것으로, 각자 서로 다른 기능을 수행함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陽殺陰藏”◆

또한 『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말하기를 “陽殺陰藏”이라고 하였는데, 이 역시 음과 양이 동일한 생명활동선상에서 서로 연계되어진 다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음과 양이 동일 생명체의 보존을 목적으로, 동일한 생명활동의 內外 혹은 前後 활동을 담당하는 一物兩面의 생명기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마치 한 가정집에서 함께 상추쌈밥을 먹기 위해 어머니는 상추씨를 밭에 뿌리고, 아버지는 다 자란 상추를 뽑아 다듬는 역할과 마찬가지로

11) 상기 소제목은 『내경』의 원문이 아니라, 저자가 설정한 中文 제목으로 본문내용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여겨져 중문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표시 부분은 모두 『내경』 원문이다
12) 음양은 서로 다른 속성과 기능을 지녔으며, 동일한 생명체 유지라는 공동의 목적을 지니고 절대 필수인 양대 생명 기능으로 존립하는 관계이다. 이에 관해, 원광대학교 급경수 교수와 토론중 급경수는 “夫婦有別”이란 오랜 개념을 빌어다 “陰陽有別”을 설명하였다. 즉 음양은 서로 다르며 실제 서로 다른 속성을 지니고 다른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음양 모두 가정이란 공동체의 생명유지를 위해 절대 필요하며 양자는 반드시 相互認定과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둘 중 어느 하나가不在해도 가정이란 공동생명체가 파괴되는 관계가 바로 음양 관계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陰陽有異의 관계를 매우 간결하고 적확하게 설명한 이론이라고 사료된다.

10- 楊序蘭, 《陰陽五行》, p101, 科學出版社, 1998년.

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생명활동에서 각자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렇듯 陽은 일련의 생명활동 과정 속에서 시들고 기운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陰은 시들고 기운 것을 거두어 갈무리하는 등 동일 생명활동 속에서 단지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2) 陰陽必互相依存, 無一物不可¹³⁾

(음양은 반드시 상호 의존하여 존재하며, 어느 하나가 없어도 생명활동이 불가능하다)

◆“陽生陰長”◆

위에서 보았듯이 『내경』에서 음과 양은 분명히 외형상 현저하게 다른 속성을 지니며, 서로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음과 양은 내면적으로는 동일 생명체 유지를 공동 목적으로 하며, 동일한 생명활동 범주에서 단지 각기 다른 영역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陰陽은 반드시 相互依存하며, 상대의 도움 없이는 결코 자신을 완성하지 못한다. 『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는 말하기를 “陽生陰長”이라고 하였는데, 이를 표면적으로 해석하면 ‘양은 생성을 주관하고 음은 성장을 담당한다’라고 하여 음양의 서로 다른 역할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러나, 『내경』이 더 깊이 말하고자 한 양자의 관계는 바로 음양은 어느 하나도 상대를 떠나서 단독으로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없으며, 반드시 상대의 supporting을 통해서만 자신의 역할 기능을 온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이에 관해 王冰은 『黃帝內經素問集注·上古天真論』에서 말하기를 “陰陽之道, 孤陽不生, 獨陰不長.”(음양의 도는 양 홀로 생성을 이룰 수 없고, 또한 음 혼자서도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곧 양 단독으로는 만물 생성의 역할 기능을 완전히 수행할 수 없고, 음 역시 단독으로는 만물 성장의 역할기능을 완전하게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장개빈은 역시 『類經·陰陽應象』에서 “蓋陽不獨立, 必得陰以後成, …… 獨陽不生, 獨陰不成也.”(대개 양은 혼자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반드시 음과 더불어 있어야만 양의 기능과 역할을 완성할 수가 있다. …… 陽 단독으로 만물의 생성을 이룰 수 없고, 또한 陰 단독으로도 만물의 成長을 이룰 수가 없다.)라고 말하여, 양은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못하고, 반드시 음을 얻어야 양의 기능과 역할이 완성된다고 해석하였다. 즉, 만물의 發生은 따뜻한 태양빛에 의지하여 가능하지만, 양육하고 成長시키는 것은 비와 이슬을 필요로 한다는 生長이론이다. 이는 곧 음양간에 상호 협조하고 연계하는 생명활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생명체의 生成과 成長이란 生長활동이 비로소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내경』에서 이른바 “陽生陰長”의 실제 內涵이라고 할 수 있다.

◆“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 陰之使也”◆

음과 양의 활동 영역을 비교해 보면, 음은 내부에서 활동하며 양은 외부에서 활동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음이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양이 지켜주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양 또한 밖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음이 지시하고 부리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곧 “陰在內, 陽之守也., 陽在外, 陰之使也” 『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 말한 음양의 相互依存的 관계인 것이다. 왕빙은 이에 대해 주석하여 말하기를 “陰靜, 故爲陽之鎮守., 陽動, 故爲陰之使役”(음이 平靜한 것은 양이 누르고 지켜주기 때문이며, 양이 활동하는 것은 음이 부리고 지시하기 때문이다)¹⁴⁾라고 해석하였는데, 이것은 또한 위의 “陰陽有異, 異中求同”에서 설명한 “陰靜陽躁”에 담긴 실제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음과 양 양자가 철저히 상호 보완과 공조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이 지켜주지 않는 한 음은 내부에서 결코 활동할 수 없고, 또한 음이 지시하고 명령하지 않는 한 양이 외부에서 활동할 수 없다는 사실은 마치 인간 사회의 기본 단위인 가정에서 음과 양으로 구별되는 아내와 남편의 상호보완적이며 상호의존적인 관계와 완전히 일치함을 알 수 있다¹⁵⁾. 즉 『내경』의 陰陽醫論에서 추구하는 음양의 관계와 원리는 바로 가정과 사회 인류사회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적용되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음양의 상호 관계와 원리가 철저히 개인의 신체와 정신에서 실현되고 나아가 가정 그리고 모든 인간 사회에 적용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평화와 공존과 상생의 세계를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陰者, 藏精而起亟也., 陽者, 衛外而爲固也.”◆

『內經·素問·生氣通天論』에서 이른바 “陰者, 藏精而起亟也., 陽者, 衛外而爲固也.”(음은 정을 간직하며, 재빠르게 음기를 발동하여(즉 起亟) 외부의 양기에 대응하여 견제한다. 양은 외부를 지키며 음을 견고하게 한다)의 이론은, 바로 음과 양의 상호보완적이며 공조적인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에 대해 『내경』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말하기를 “故陽強不能密, 陰氣乃絕”(양이 강하기만 하고 견고하지 못하면, 음의 기능이 새어나가 精氣가 끊어져 없어진다) 『內經·素問·生氣通天論』라고 말하였다. 즉 양의 기능이 비록 강하다 할지라도 음을 잘 지켜주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 음이 간직하고 있는 근원생명력인 精氣가 다 멸절되어 생명이 소실되고, 또한 만일 양이 정기를 간직한 음을 견고하게 보호하여 음이 평정하면 신

14) 王冰 『黃帝內經素問注·陰陽應象大論』, p43, 人民衛生出版社, 1996년.
 15) 『內經·素問·陰陽應象大論』曰“陰陽者, 血氣之男女也.”
 16) 『說文解字』에는 亟을 “敏疾也”라고 해석하여 ‘敏’(재빠르다) 혹은 ‘疾’(빠르다)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또한, 王冰 역시 “亟, 數也”라고 하였는데,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數亦急也”라고 말하며 ‘數’ 역시 ‘急’(급하다, 빠르다)의 의미라고 주석하였다. 따라서 『내경』 원문에서 이른바 “陰者, 藏精而起亟也., …… 陰不勝其陽, 則脈流薄疾, 并乃狂”이란 바로 ‘음은 정을 간직하며, 재빠르게 음기를 발동하여(즉 起亟) 외부의 양기에 대응하여 견제한다. …… 만일 음이 외부의 양기를 적절하게 견제하지 못하여 양의 침범을 당하면, 맥이 열고 급하게 흐르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17) 『說文解字』에는 亟을 “敏疾也”라고 해석하여 ‘敏’(재빠르다) 혹은 ‘疾’(빠르다)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또한, 王冰 역시 “亟, 數也”라고 하였는데,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數亦急也”라고 말하며 ‘數’ 역시 ‘急’(급하다, 빠르다)의 의미라고 주석하였다. 따라서 『내경』 원문에서 이른바 “陰者, 藏精而起亟也., …… 陰不勝其陽, 則脈流薄疾, 并乃狂”이란 바로 ‘음은 정을 간직하며, 재빠르게 음기를 발동하여(즉 起亟) 외부의 양기에 대응하여 견제한다. …… 만일 음이 외부의 양기를 적절하게 견제하지 못하여 양의 침범을 당하면, 맥이 열고 급하게 흐르게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13) 주위와 마찬가지로 『내경』 원문이 아닌 저자가 명명한 중분 제목이다.

체의 질병까지도 치유된다는 설명이다. 이것이 이른바 『素問·生氣通天論』에서 말한 “陰平陽密，精神內治”의 실제 內涵이다.

왕빙 역시 말하기를 “陽者強而不能閉密，則陰泄瀉而精氣竭絕矣”(만일 양이 강하되 고밀하지 못하면, 음이 간직한 정기가 누설되어 닳아 소멸된다) 18)라고 주석하였다. 즉 양이 비록 강하나 자신을 견고하고 고밀하게 지켜주지 못한다면, 바로 음기가 새어나가 결국 정기 소멸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양과 음은 자기의 기능과 역할을 철저히 감당해야 하며, 만일 양이 자신의 기능을 견고하게 지키지 못할 경우, 결과는 바로 음이 새어나가 생명력의 고갈을 초래 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음과 양은 자신의 기능과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때 비로소 상대가 정상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극도의 유기적인 상호 관계임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해, 음과 양의 상호 관계는 극히 단순하여, 오직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이 바로 상대를 보호하고 쌍방이 공생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양이 자신의 기능에 충실하지 못했을 때 상대인 음은 기능의 누수현상이 생기어 정기를 소실하게 되고 양자는 공멸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과 양의 상호관계는, 상대에 대한 위협이나 영역 침범을 통해 자신이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자신의 영역과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고 고밀하게 지키며, 자신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만이 양방이 함께 공생하는 유일한 생존 방법이 되는 것이다.

3) 陰陽和諧而生，離決而死¹⁹⁾

(음양이 함께 어우러지면 생존하고, 음양이 서로 들어지면 죽는다)

◆“陰陽離決，精氣乃絕”◆

이상에서 우리는 陰陽이 결코 배척적 관계가 아닌 극히 우호적인 관계이며, 상대의 도움 없이는 결코 자신을 존립시킬 수 없는 절대 의존적인 상호관계임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러한 상호보완적이며 의존적인 음양 관계는 또한 절대적인 상호견제와 균형과 조화의 바탕에서만 가능하며, 이를 통해 共生과 相成의 생명세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바꿔 말해, 생명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 절대 필요한 양대 생명기능 partner인 음양 간에 만일 “陰陽離決” 상황이 발생하여 상호 협조관계가 파괴되거나, 혹은 자기 역량과 기능을 상실하여 이른바 陰陽失調에 이르게 되면, 음양의 균형과 견제 및 상호협조 관계가 모두 파괴되어 곧 전체 생명의 상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곧 『內經·素問·生氣通天論』에서 말한 “陰陽離決，精氣乃絕”(음양이 서로 결렬되면, 원래의 생명력이 곧 끊어져 버린다)의 음양사상으로, 음양의 공조와 협조체계의 결렬은 곧 근원생명력을 소멸시켜 사망에 이른다고 강조하는 선언인 것이다. 즉, 음양은 반드시 절대적인 상호협조와 보완의 관계로 존재해야 하며, 만일 양자의 공조 체계가 결렬되면 양자가 공동으로 소속된 근원생명력이 멸절되어 자신은 물론 전체 생명이

상실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또한 이른바 陰陽失調란 바로 음양의 균형과 조화의 상실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는데, 첫째는 음과 양이 지닌 역량의 균형이 상실되었을 때, 둘째는 음과 양이 자기 고유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때이며, 셋째는 음과 양의 협조 공조 체계가 무너졌을 때라고 설명한다²⁰⁾.

음과 양은 철저한 자기 고유의 영역과 기능을 지니며, 각자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상대와의 협조와 공조 체계를 유지할 수가 있다. 여기에서 음양은 모두 적극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방어하고 활발하게 자신의 기능을 발휘해야만 음양의 협조 관계를 달성할 수가 있다.

만일 음양중 혹자가 자신의 영역 축소나 소극적인 기능 발휘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상대의 영역확대와 기능침범을 초래하게 되어 음양의 정상적 구도가 파괴되고 결국 생명력의 악화와 소멸에 이르게 된다. 바꿔 말해, 자신의 영역과 기능을 최대한 사수하고 보호하되 절대로 상대의 영역과 기능을 침범하고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 생명기능의 guide line과 rule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陰不勝其陽，則脈流薄疾，并乃狂²¹⁾。陽不勝其陰，則五臟氣爭，九竅不通。”◆

이는 『內經·素問·生氣通天論』에서 언급한 음양의 평형론으로, 즉 생명기능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음양은 상호간에 반드시 적절한 상호 견제와 균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설명해주는 이론이다. 이에 앞서 『내경』은 또 말하기를 “陰者，藏精而起亟也，陽者，衛外而爲固也。”라고 하여, 음은 내부에서 精을 저장하며, 양은 외부를 고밀하게 하여 음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상호 보완적 의존적 기능을 설명한 적이 있다.

『내경』은 이와 같이 음양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설명함과 동시에 또한 음양 간에 상호견제와 평형 관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것이 곧 『內經·素問·生氣通天論』에서 말한 바 “陰不勝其陽，則脈流薄疾，并乃狂²³⁾。陽不

20) 楊學鵬 《陰陽五行》，頁 207에서 인용

21) “并乃狂”의 “并”을 重(거듭, 중복)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說文解字』에 이르기를 “并，相從也”이라 하여 하나가 아닌 둘 이상으로 거듭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저자는 “并乃狂”을 “(증상이) 거듭되어지면”으로 해석하여, “만일 음기가 양기를 적절하게 견제하지 못하여 침범을 당하게 되면 맥이 열고 빨라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이 거듭되면 미치게 된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는 “病乃狂”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어에서 并과 病이 비록 발음은 같으나, 결코 并이 疾病의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22) 『說文解字』에는 亟을 “敏疾也”라고 해석하여 “敏(재빠르다) 혹은 ‘疾(빠르다)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또한, 王冰 역시 “亟，數也”라고 하였는데,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數亦急也”라고 말하며 “數 역시 ‘急(급하다, 빠르다)의 의미라고 주석하였다. 따라서 『내경』 원문에서 이른바 “陰者，藏精而起亟也，……陰不勝其陽，則脈流薄疾，并乃狂”이란 바로 ‘음은 정을 간직하며, 재빠르게 음기를 발동하여(즉 起亟) 외부의 양기에 대응하여 견제한다. …… 만일 음이 외부의 양기를 적절하게 견제하지 못하여 양의 침범을 당하면, 맥이 열고 급하게 흐르게 된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23) “并乃狂”의 “并”을 重(거듭, 중복)의 의미로 해석하였다. 『說文解字』에 이르기를 “并，相從也”이라 하여 하나가 아닌 둘 이상으로 거듭되는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저자는 “并乃狂”을 “(증상이) 거듭되어지면”으로 해석하여, “만일 음기가 양기를 적절하게 견제하지 못하여 침범을 당하게 되면 맥이 열고 빨라지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증상이 거듭되면 미치게 된다”는 의미이다. 참고로 『素問病機氣宜保命集』에는 “病乃狂”으로 되어 있는데, 중국어에서 并과 病이 비록 발음은 같으나, 결코 并이 疾病의 의미를 갖지는 않는다.

18) 見王冰『黃帝內經素問』，人民衛生出版社，1996년.

19) 주9), 11)과 동일하게 저자가 명명한 중문제목이다

勝其陰，則五臟氣爭，九竅不通。”(만일 음이 외부의 양기를 적절하게 견제하지 못하여 양의 침범을 당하면, 맥이 열고 빨라지며, 이 증상이 반복되면 미치게 됩니다. 또한 만일 양이 그 음을 적절하게 견제하지 못하면 오장의 기가 서로 다투어 구규가 통하지 않게 됩니다)의 내용으로, 바로 음과 양이 절대적인 협력 관계를 수립함과 동시에, 이러한 관계 유지를 위한 대전제는 바로 음과 양간의 합당한 견제 관계라고 분명히 강조하는 것이다. 즉 陰剋陽과 陽剋陰의 양자간 상호견제가 철저한 평형을 이룬 상황에서, 비로소 양은 음을 보호하고 음은 양을 지시하여 精氣를 능히 보존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이른바 “陰不勝其陽”과 “陽不勝其陰”이란 바로 음양의 불균형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결과는 인간이 미쳐 버리거나 구규가 통하지 않는 최악의 상태가 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즉 음과 양의 관계는 반드시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형성해야 하며, 이러한 상호관계는 반드시 상대에 대한 합당한 견제 관계가 필수로 요구된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다시 말해 음양 양자가 본래 지니고 있는 최고의 이상적이고 우호적인 상호관계는 반드시 철저한 상호견제와 균형을 그 밑바탕으로 삼으며, 이러한 相剋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때 본래의 상호 협조 체제는 여지없이 무너져 생명이 상실된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내경』의 음양간의 관계는 자신영역과 기능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영역보존이 바로 상대영역과 기능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 되며., 또한, 상대의 영역과 기능에 대한 철저한 존중이 곧 자신의 영역과 기능에 대한 보호가 되는 것이 내경의 음양 개념에서 나타나는 최고의 生命原理인 것이다.

이상의 음양 상호관계에서 살펴본 생명사상은, 바로 우주만물의 모든 음양 요소는 비록 서로 상반되거나 극히 다른 속성을 지녔지만, 오직 共生共死를 추구하여, 함께 平靜해야 하며, 동시에 幸福해야만 동일 생명체가 유지 존속되어지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 음양이 추구하는 최고의 partnership은 상대에 대한 견제를 통해 평형의 관계를 유지하여 양자의 공생을 추구하는 것이며., 상대의 영역과 기능을 침해하는 相乘은 단지 共滅을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음양간의 견제는 양자의 共生共存을 지키기 위한 절대 필수적 적극적 생명활동이다. 즉 어느 한 축으로 기울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동시에 상대의 영역 침범을 방어함으로 완전한 평형을 이루는 것으로, 이를 통해 너와 내가 그리고 음과 양이 모두 살 수 있는 길이 모색되는 것이다. 상대의 소멸과 위축은 곧 공동생명체인 나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 론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내경』에 나타난 음양의 관계는 相生 - 相克 - 相成 - Win-Win의 최고 理想적인 유기체적 상호관계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음과 양은 모든 생명체 유지의 절대 필수적인 양대 생명 기능 혹은 생명 속성으로, 서로 다른 영역과 역할을 담당하나 동일한 생명유지와 존속을 공동의 목적으로 존립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음과 양은 그 중 어느 하나

도 없어서는 아니 되며, 음이 없는 양 혹은 양이 없는 음은 근본적으로 존립할 수가 없는 절대적인 상호 보완과 상호 의존을 필요로 하는 관계이다.

음양 양자는 또한 반드시 자신의 영역과 기능에 대한 철저한 보호와 역할수행을 통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이러한 견제와 균형관계의 바탕위에서 상호간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相生과 相克이란 이상적인 협조관계를 추구한다.

반면에, 음양 상호간 상대에 대한 영역침범과 기능 억압을 기시키는 相乘과 相侮 관계를 가장 질시하고 배척한다. 이와 같이, 『내경』의 陰陽사상이 추구하는 최고의 이상적 상호관계는 바로 相生과 相克을 통해 견제와 균형과 화평의 共生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음양 상호간에 相成 즉 win-win이란 지극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최고의 상호 관계를 추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내경』의 음양간의 관계는 오직 你活我才活(당신이 살아야 내가 비로소 살게 된다)과 人死我也死(상대가 죽으면 나도 죽게 된다)의 共生共死 관계만이 존재하며., 결코 你死我才活(상대가 죽어야 내가 비로소 살게 된다) 혹은 我死你才活(내가 죽어야 당신이 겨우 살게 된다)의 상호 위협적이거나 적대적 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황제내경』은 우주생명의 양대 요소인 陰과 陽을 대립성과 상반성을 초월하여 동일 생명을 추구하는 생명의 절대적인 配偶로 그 존재 가치를 설정하였고., 바로 이러한 음양이 추구하는 지극히 유기적인 상호관계를 통해, 모든 만물이 총체적 생명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재의 인류에게, 우리가 새로이 지향해야 할 만물과 인간, 인간과 인간, 너와 나 사이에 유일하게 共生과 相成을 도모할 수 있는 생명체간의 최고 理想적인 상호관계를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1. 王冰 『素問王冰注』 四部叢刊影印本
2. 張志聰 『靈樞集注』 康熙壬子刻本
3. 郭霽春 『黃帝內經靈樞校注語譯』, 일증사, 1992.
4. 陳璧琉 鄭卓人 『靈樞經白話解』, 人民衛生出版社, 1963.
5. 洪元植校譯 『黃帝內經靈樞直譯』, 전통문화연구회, 1991.
6. 李慶雨 『編譯注解 黃帝內經靈樞』, 여강출판사, 2003.
7. 素問研究集成刊行委員會 『素問研究集成』, 금성인쇄사, 2001.
8. 嚴世芸 『中醫學術史』, 上海中醫學院出版社, 1989.
9. 楊力 『周易與中醫學』,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89.
10. 鄒學喜、鄒成永 『中國醫易學』, 四川科學技術出版社, 1988.
11. 何少初 『古代名醫解周易』, 中國醫藥科技出版社, 1998.
12. 朱伯崑 『易學哲學史』(上中), 北京大學出版社, 1988.
13. 朱伯崑主編 『易學』, 九州出版社, 2002.
14. 李學勤主編 『周易正義』, 北京大學出版社, 1999.
15. 徐志銳 『周易大傳新注』, 齊魯書社 1989.
16. 黃壽祺、張善文 『周易譯註』 上海古籍出版社 1990.
17. 陳鼓應、趙建偉 『周易注譯與研究』, 臺灣商務印書館, 1999.
18. 陳鼓應 『易傳與道家思想』, 三聯書店, 1996.
19. 楊學鵬 『陰陽五行』, 科學出版社, 1998.